

From : Kimbyung

Date : Feb. 27, 2010

Subject : FW: 부부란

부 부 (夫 婦)

우리가 공기의 소중한을 모르듯이

부부간에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한쪽이 되면 그 소중한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늙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화기애애한 여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 부부
곁에 있어도 그리운게 부부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부부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쉬고 마음도 쉬는 부부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되는게 부부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젊은이는 아련하게 고독하고

늙은이는 서글프게 고독하다



부자는 채워져서 고독하고
가난한 이는 빈자리 때문에 고독하다

젊은이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울고,
노인은 잃은 것 때문에 운다



청년의 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 떨고
노년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떠난다

젊은이는 같이 있어 싸우다가 울고
늙은이는 혼자 된 것이 억울해서 운다



사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애련한 일은 없다
그것이 부부일때 더욱 그러하리라
젊은시절엔 사랑하기 위해 살고
나이가 들면 살기위해 사랑한다



아내란

청년에겐 연인이고

중년에겐 친구이며

노년에겐 간호사다" 란 말이 있지 않은가...



인생 최대의 행복은

아마 부도 명예도 아닐 것이다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난 당신 만나 참 행복했소" 라고 말하며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수한 흘러간 노래 모음 (20 곡)

구수한 흘러간 노래 모음

01. 나그네 설움
02. 낙화유수
03. 진주라 천리길
04. 서귀포 칠십리
05. 만포선 길손

06. 코스모스 탄식
07. 목포의 눈물
08. 꼬집힌 꽃사랑
09. 물방아 사랑
10. 연락선은 떠난다

11. 고향초
12. 애인
13. 짙레꽃
14. 바람부는 세상
15. 숨어우는 바람소리

16. 등대처럼
17. 울며 헤진 부산항
18. 보슬비 오는 거리
19. 소양강 처녀
20. 십년된 아내에게